

'전남 길' 관광 자원 만든다

해안 도로 등 절경따라 친환경 경관 조성

전남도가 해안도로, 친환경 경관도로, 마을 주변 보행자 도로 등을 이를 담고 조성하고 관리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3일 "해안 절경을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 콘크리트 용벽이나 바위 절개 같은 도로 변을 녹화하는 한편, 마을 인근 도로의 가장자리를 확·포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5월 중에 15억원을 들여 진도 해안 일주도로(11.6km)에 대한 시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또 하반기 중에 '동·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 예정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전남도내 해안도로의 개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안선 도로 기본계획' 용역도 발주한다.

도는 또 고금~미량, 구례~광양간 지방도의 바위 절개지에 등나무를 식재하는 등 익산지방국토청과 함께 134개 도로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해오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방음벽, 계단, 용벽 등에 목재를 적극 사용하고 경관 좋은 도로변의 주차장 개설, 폐도를 이용한 삼지공원 조성에도 나선다.

도는 마을 앞길 등의 잊은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길 어깨를 확포장하는 '마을 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지금까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교통 흐름을 우선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관광 및 경관 기능, 농촌지역 노령자 교통안전 등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장성·'펩타이드'·곡성-방제용 천적 생산 공장

애니젠(주)·(주)세실 등 4개 기업과 투자 협약

전남도가 의약품 소재 생산과 생물 방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생활자원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이정 장성군수, 조현래 곡성군수, 나노생물방제센터 입주 예정 4개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 139억원 규모의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나노생물방제산업 특화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장성 나노바이오 센터에는 의약품 소재기업인 애니젠(주)과 의료기기 기업인 (주)AMG코

리아가 민자본 79억원을 투자해 총 119억원(국비·지방비 40억원 포함) 규모의 생산시설이 구축된다.

애니젠(주)은 단백질의 기능적 최소 단위로 생물체 신호전달 및 기능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인 '펩타이드'를 연간 280억여원(10kg) 가량 생산하게 된다.

(주)AMG코리아는 혈관·위장관·담도 등 혈액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할 때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에 삽입해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유통형의 의료용 재료인 '스텐트'를 연간 150억여원(1만개)이씩 생산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LA갈비 수입 재개 조만간 발표

오늘 한·미 쇠고기 협상

정부는 미국측과 지난 11일 과천 청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쇠고기 협상을 벌인데 이어 14~15일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양측이 타협점을 찾으면 15~16일께 LA갈비를 포함한 미국 쇠고기 허용 범위 확대와 수입 재개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 나머지 금융공 기업 수장들의 사표 제출도 잇따라

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11면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 정책관은 지난 11일 수입 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새로운 위생조건 문안을 우리측에 제출했고, 우리는 주말에 미

측 제안을 검토한 뒤 의견을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 협상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민정책관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예상대로 미국측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 받은 뒤 출판 주장해온대로, "OIE 지침에 맞춰 연령·부위 제한을 없애달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보고에서 산업은행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해 김 총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김 총재의 사표 제출은 다른 금융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사장 임기를 불과 2~3개월 남겨 두고 있어 이번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공기업 수장들도 줄 사퇴 예고

산은 김창록 총재 사표

4·9 총선 이후 금융공기업 대표들의 교체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금융공기업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 나머지 금융공 기업 수장들의 사표 제출도 잇따라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김 총재가 지난 12일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재는 2005년 11월 25일 취임해 임기 만료를 7개월여 정도 남겨둔 상태지만 정부가 윤여상에 안에 산업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데 이 명박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

도심 속 거리페스티벌

*장소 : 금남루광장 *행사기간 : 4월~11월까지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둘째·넷째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광주 U대회 유치·총장 축제 성공 기원

'2013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제5회 총장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도심 속 거리페스티벌'이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옛 한국은행)에서 열렸다. 동구청이 주최하는 거리페스티벌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광주시 동구청 제공)

社告

제31회 광주·전남여성경제인 포럼

김장길 소장 '행복한 일터 만드는 삶의 원칙'

1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카네기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미인대 청 비비불'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장길 호남

5월 2일(금)

▶성상학회 월정도 청아봉 페스티벌(5월 2일금~3일금)

▶민족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전통문화 축제(5월 2일금~3일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T.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 (062)2200-641

▶광주